

4·3과 제주방언의 의미작용 - 현기영의 「순이삼촌」을 중심으로 -

이 명 원*

1.

‘4·3문학’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고 할 경우, 우리들의 머리 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품은 현기영의 「순이삼촌」(1978)이다. 그간 4·3과 관련하여 매우 많은 작품들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독자들은 ‘4·3문학’의 대표작으로 「순이삼촌」을 거론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그렇다면, 작품이 발표된 시점으로부터 벌써 20여 년 이상 경과한 오늘날의 시점에서 「순이삼촌」이 독자들에게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대략 다음 세 가지 사실 때문이 아닌가 한다. 첫째, 「순이삼촌」의 기념비적 성격이 그것이다. 이 작품은 그간 역사 속에 망각되어 있던 4·3을 냉전적 시각을 벗어나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에서 그려내고자 했던 최초의 시도로 여겨진다. 오늘날의 시점에서 읽어보더라도, 「순이삼촌」에서 제시되는 4·3에 대한 작가의 시각은 여전히 높은 설득력을 지니는 것처럼 보인다. 둘째, 4·3에 대한 작가 현기영의 지속적인 창작되었을 것이다. 셋째, 이러한 이유와 함께 독자들은 〈순이삼촌〉에 표영향 때문일 것이다. 많은 작가들이 4·3에 대한 작품을 썼다고는 하지만, 현기영처럼 작가 인생의 전기간에 걸쳐 4·3에 관한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관찰시킨 경우는 드물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많은 사람들은 ‘4·3문학’의 전형으로 현기영의 소설을 연상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러한 작업의 출발점에 위치한 「순이삼촌」을 주목하게 된 4·3의 특수성에 대한 작가의 인식에 주목했을 것이다. 그것을 단순화하

* 『비평과 전망』 편집위원

여 표현하자면 '제주인의 눈으로 바라본 4·3' 정도로 요약될 수 있을 터인데, 어찌 보면 바로 이러한 사실이야말로 좌우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통해서 본 4·3이라는, 지금도 여전히 관철되고 있는 뿌리깊은 고정관념을 수정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과 함께, 우리가 흔히 망각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이 작품이 '언어예술'이라는 미학적 측면에서 볼 때도 매우 뛰어난 작품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4·3문학'을 논의하는 가운데, 암암리에 작품의 미학적 구조보다는 작품을 통해 발산되는 전언이라든가 서사적 재현의 리얼리티, 작가의 세계관에만 과도하게 주목해 왔던 것은 아닐까. 현기영의 소설에 국한시켜 이야기하자면, 그의 소설을 '4·3문학'이라는 관점에서만 과도하게 사유한 나머지 '4·3문학'으로서의 미학적 성취의 측면에서 대해서는 다소 소홀하게 접근했던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도 던져 볼 수 있을 것이다. 왜 지금으로부터 20여 년도 더 전에 발표된 「순이삼촌」은 오늘날의 독자들이 읽어보아도 생생한 감동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것일까. 아무래도 그것은 이 소설이 담보하고 있는 미학적 성취에 힘입은 탓이 큰 것 같다.

필자는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 아래, 현기영의 「순이삼촌」을 언어적 코드의 분석을 통해 간략하게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것은 「순이삼촌」에서 제주방언을 포함한 언어의 상징체계가 매우 중요한 서사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우리는 분석을 통해서 「순이삼촌」에 등장하는 서울방언과 서북방언, 제주방언이 4·3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생성시키고 있는지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무의식은 언어의 형태로 구조화된다는 한 정신분석학자의 지적처럼, 소설 속에서 작동되는 언어는 작중인물은 물론 작가의 무의식을 암암

리에 드러낸다. 현기영의 소설 속에서 그것은 제주방언의 빈번한 활용으로 나타난다. 특히, 이른바 4·3을 소재로 한 현기영의 초기 삼부작이라고 할 수 있을 「순이삼촌」, 「도령나무의 까마귀」, 「해룡 이야기」에서, 제주방언은 4·3을 체험한 제주민중의 역사의식과 주체의 무의식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소설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순이삼촌」의 경우에는 서울 방언(표준어), 제주방언, 이북방언이라는 세 층위의 언어코드를 활용하여, 4·3이라는 역사적 사태를 보다 효과적으로 조명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순이삼촌」을 언어적 코드에서 검토할 경우,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층위의 언어행동의 대립양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경우는 제주방언과 서울방언의 대립이며, 두 번째 경우는 제주방언과 이북방언의 대립이라는 현상이다. 이제부터 이러한 방언간의 대립이 파생시키는 소설적 효과와 의미에 대해서 검토해 보기로 하자.

2-1.

「순이삼촌」에서 제주방언과 서울방언의 대립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순이삼촌과 화자의 아내와의 관계에서 파생된다. 4·3의 와중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그 자신 죽음의 위기에서 간신히 살아났던 순이삼촌은 이후 내면화된 4·3의 후유증을 겪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다. 4·3 당시로부터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순이삼촌의 고통은 치유되지 않는다. 그러던 차에 순이삼촌은 제주를 떠나 서울 화자의 집에 일 년여간 머무르게 되는데, 이 와중에 제주방언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화자의 아내와 심리적인 갈등을 빚게 된다. 그 갈등은 제주방언과 서울방언에 대한 순이삼촌과 아내 사이의 오해에서 비롯된다.

아내는 순이삼촌이 쌀이 다 떨어져서 사와야 한다는 말에 “쌀이 벌써 떨어졌어요?”라고 예사로 말을 던졌을 뿐이란단. 알았다는 뜻에서, 아, 그래요? 하듯이 가볍게 한 말을, 서울말의 억양에 익숙하지 못해서 그랬던지 “쌀

이 벌써 떨어질리 있나요?” 하는 반문(反問)으로 잘못 오해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삼촌은, 내가 너무 밥을 많이 먹어서 쌀이 일찍 떨어졌느냐, 도둑년 처럼 내가 쌀을 몰래 내다 팔았다는 말이나, 하면서 우는 것이었다. 참 기가 찰 노릇이었다.¹⁾

위의 인용문을 읽으면 알 수 있듯, 이것은 언어행동 상의 단순한 오해에 불과하다. 표면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그것은 순이삼촌이 화자의 아내가 구사하는 서울방언의 억양과 어조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사소한 실수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대하는 순이삼촌의 태도일 터인데, 이후 순이삼촌은 토마토 주스를 먹자고 해도 “식모는 그런 고급음식은 먹영 안되는 거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쌀이 일찍 떨어진 원인이 밥을 질게 하거나 놀게 한 데 있다고 판단하면서 된밥을 하기 위해 애쓰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결벽증을 보여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순이삼촌은 자신이 사용하는 제주방언을 이해하지 못하는 화자의 아내에게 수치심과 피해의식을 느끼게 되는바, 이것은 정도의 차이만 있지 순이삼촌뿐만 아니라 화자인 ‘나’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소설 속에서 제시된다.

아내의 태도가 우선 글러먹었다. 순이삼촌이 하는 사투리를 아내는 알아듣지 못했다. 이해해 보려고 애쓰는 것 같지도 않았다. 저게 무슨 말이나는 듯이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볼 때 나는 나 자신이 무시당한 것처럼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껴야만 했다. 그건 신혼초에 아내가 무슨 일로 호적초본을 땔다가 제 본적이 남편 본적인 제주도로 올라 있는 당연한 사실을 가지고 무척 놀란 표정을 지었을 때 내가 느낀 수치감과 비슷한 것이었다. 이렇게 사투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아내 앞에서 순이삼촌의 처신은 어떻게 해야 옳은가? 그저 말수를 줄이고 시키는 말만 고분고분 따르는 수동적인 입장을 취할 도리밖에 더 있는가.

그날 이후 나는 여태 막연히 기피증 현상으로만 나타나던 고향에 대한 선

1) 현기영, 『순이삼촌』, 창작과비평사, 1979, p.44.

입견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삼촌의 존재가 나에게 늘 고향을 의식하게 해준 셈이었다. 서울생활 십오년 동안 한번도 써보지 못하고 묵혀 두었던 사투리도 쓰기 시작했다. 고향말은 주로 삼촌에게 썼지만 민기눔에게도 사투리를 꽤나 많이 가르쳐 주었다. 그렇다. (중략) 서울말 일변도의 내 언어 생활이란 게 얼마나 가식적이고 억지춘향이었던가. 그건 어디까지나 표절 인생이지 나 자신의 인생은 아니었다.²⁾

위의 인용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나'와 순이삼촌에게 제주방언은 고향의 기억, 더 정확하게는 의식적으로 망각하고자 했던 4·3의 비극적인 기억을 복원시키는 매개로서 작동된다는 것. 둘째, '나'의 서울에서의 생활이란 제주방언의 의식적 망각을 통해서야 가능했으나, 순이삼촌의 출현으로 이것이 불가능해졌음이 그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순이삼촌이 발성하는 제주방언과의 재회를 통해서 '나'는 그가 의식적으로 부정하고자 했던 존재론적이자 동시에 역사적인 기원으로의 복귀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서울말 일변도의 언어생활을 가식적이고 억지춘향의 것으로 반성하는 '나'의 독백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겠다. 화자와 순이삼촌에게 제주방언이 고향의 기억, 더 정확히는 4·3을 전후한 제주의 비극적 역사를 상기시키는 언어적 코드로 작동되고 있음은 일단 존중할 만하다. 언어를 통해 우리는 자기 존재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며, 특히 자신이 나고 자란 지역의 방언이란 유장한 시간의 진행 속에서 축적된 역사적 기억을 내포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도 다음과 같은 질문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왜 제주방언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론적이자 역사적인 기원을 확인하게 된 '나'는 제주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아내에게 분노와 피해의식을 느껴야 했던 것일까. 그것은 '나'와 순이삼촌이 사용하는 제주방언

2) 현기영, 위의 책, pp.43-44.

이 소외된 타자의 상징체계로 아내에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화자의 아내가 순이삼촌의 사투리를 대하면서 “저게 무슨 말이나는 듯이 고개를 돌려” 화자를 바라보는 것은 주체(서울방언)에 의한 타자(제주방언)의 배제를 의미한다. 언어는 실재를 현실로 포섭하는 상징체계이며, 체계 밖에 존재 하는 것은 실재라 하더라도 현실로 취급되지 않는다.³⁾ 서울방언이라는 상징체계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 화자의 아내에게 순이삼촌이나 화자의 제주방언은 현실로서 존중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나’와 순이삼촌으로 하여금 소외감과 피해의식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이 ‘나’와 순이삼촌이 제주방언을 사용하는 가운데 불가피하게 수반하게 되는 수치심과 피해의식에 대한 완전한 해명이 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런데 현기영의 또다른 4·3에 관한 소설인 『해룡이야기』(1979)에는 이러한 의문을 해명할 수 있는 유익한 단서가 제시되고 있어 흥미롭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중호 역시 『순이삼촌』에서의 ‘나’와 같이 제주방언을 전혀 모르는 그의 아내와의 관계에서 동일한 정서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중호는 제주방언에 갇혀 있는 수치심과 피해의식이 제주인들의 ‘육지 콤플렉스’의 산물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

중호는 입술을 피나게 깨물고 양미간을 찌푸렸다. 안된다. 왜 겁을 내! 꿈쩍꿈쩍 잘 놀라는 어릴 적 소아병을 이젠 청산해야지. 겁낼 게 아니라 불같이 노여워하고 무섭게 증오해야 한다. 그래야 나의 주눅든 피해의식을 극복할 수 있다. 해룡의 탈을 벗기고 그 흉측한 정체를 알아봐야겠다. 막연히 육지도별군이니 서북군이니 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인명과 사례를 알아보자. (중략) 각자 가슴 속에 묵혀 둔 피해의식을 몇몇한 증오로 바꾸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하지만 잊지 않기 위해서’, 집 나가신 날을 기일로 제사 올리는 아버지의 억울한 혼백, 항상 자학의 채찍질에 시달리

3) 임지현 외, 『우리 안의 파시즘』, 삼인, 2000, p.178.

는 어머니의 자격지심, 나의 욕지콤플렉스를 위하여, 그 욕지콤플렉스라는 것은, 30년 전 그 세 거리 길에서 어린 나의 뇌리에다 화인(火印)으로 뿌리지 태워 놓은 상흔이었다. 그래서 나는 아부를 배운다. 욕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알랑방구를 뽕뽕 꺾는다. 아니, 섬사람의 허울을 벗고 욕지 사람으로 탈바꿈하려고 안달복달한다. 욕지 여자와 결혼한다. 심지어는 본적까지 옮긴다. 그래서 과연 나는 욕지 사람이 되었나?

중호는 자기도 모르게 쓰거운 자조의 웃음이 새어나왔다. 흙 드레스가 철철이 세 벌 있는 곱상한 아내……시어머니의 사투리를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아들어 보려고 애쓰지도 않는 아내. 큰놈 영조도 제 할머니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⁴⁾

「순이삼촌」에서의 순이삼촌과 ‘나’와 마찬가지로, 「해룡이야기」에서의 중호와 그의 어머니 역시 제주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아내의 태도로부터 수치심과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이 제주방언을 매개로 한 수치심과 피해의식은 정확히 말하자면, 실제로는 제주방언이 수난으로 점철된 제주의 비극적 역사를 상기시킨다는 사실에서 온다. 그러니까 이때 제주방언은 의식적으로 망각하고자 하는 고통스런 제주역사의 언어적 대체물인 셈이다. 다시 말해서 중호가 제주방언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감정의 구성물들은 상처로 얼룩진 제주의 역사적 현실을 다시 확인하는 데서 오는 ‘변방인’으로서의 심리적 반응인 셈이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제주방언과의 만남이란 자신의 존재론적 기원을 발견하는 것이자 그것을 가능케 한 제주 역사의 기원과 조우하는 일이 된다. 문제는 이러한 지점에서 중호가 제주와 욕지를 ‘적대적 대립구조’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심리적 편향을 드러낸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⁵⁾ 물론 이러한 적대적 대립구조는 “욕지토벌군이니 서북군이니” 하는 표현에서 암시되듯, 4·3이라고 하는 역사적 수난의 경험을 관통하면서 얻게 된 정신의 편향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4) 현기영, 위의 책, pp.139.

5) 제주와 욕지를 ‘적대적 대립구조’로 이해하는 이러한 심리적 편향은 고려 시

다시 「순이삼촌」으로 돌아와서 이야기하자면, '나'가 제주방언에 대해 무신경하게 반응하는 아내에게서 느끼는 소외감과 피해의식은, 자신이 의식적으로 망각하고 회피하고자 했던 4·3의 진상이 순이삼촌의 제주방언을 통해 환기되는 데서 오는 부끄러움의 표시이자, 이러한 비극적 사태를 현실의 바깥으로 밀어내는 서울에서의 삶에 대한 내면화된 공격성의 표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화자가 서울에서 제주로 향하는 것은 서울방언이라는 '타자의 상징체계'로부터, 제주방언이라는 '근원적 상징체계'로 귀환하는 의미를 갖게 되며, 그것은 자신이 의식적으로 망각하고자 했던 비극적인 역사와의 맞대면을 통해 제주민중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복원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게 된다.

2-2.

화자는 할아버지의 제삿날에 때를 맞추어 제주도를 찾아간다. 화자가 제주도를 찾아가는 행위는 서울방언으로 상징되는 '타자의 상징체계'로부터 제주방언으로 상징되는 '근원적 상징체계'로의 복귀를 의미한다. "참으로 오랜만에 듣는 고향 사투리였다. 내 입가에도 은연중에 고향 사투리가 떠올라 뱅뱅 맴돌았다"⁶⁾는 화자의 진술에서 그것은 암시적으로 드러난다. 이처럼 제주방언과의 만남은 그가 의식적으로 망각

대 이후 육지에 의한 일방적 침략과 수탈의 역사를 경험한 가운데 자연스럽게 형성된 정신의 태도인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태도가 제주인들 자신에게는 매우 강렬한 자기동일성의 형성조건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데, 그것은 가령 30대 초반의 제주 출신의 젊은 평론가에게서 다음과 같은 진술을 발견할 정도로 뿌리 깊은 것 같다.

"제주도민들은 제주도민끼리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그러하지 못했을 경우 심중팔구 부모 자식 간 불화가 일어난다. 또한 제주도민들은 타지의 사람들을 일러 '육지 것들'이라고 싸잡아 비하하여 부른다. 하나님을 정점으로 하는 종교에 대한 배타성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강하게 배어있는 곳 역시 제주도이다."(홍기돈, 『페르세우스의 방패』, 백의, 2001, p.333.)

6) 현기영, 위의 책, p.35.

했던 제주방언이라는 ‘근원적 상징체계’를 적극적으로 복원시키는 작업이면서 동시에 제주민중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회복하는 작업이기도 한 것이다. 다음의 인용문에서 이러한 사실이 인상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갯빛 바다 안으로 날카롭게 먹어들어간 시커먼 현무암의 갑(岬), 저걸 사투리로 ‘코지’라고 했지. 바닷가 넓은 ‘돌빌레’(岩盤)에 높직이 쌓여 있는 저 고동색 해초 더미는 ‘듬북눌’이겠고, 겨울바다에 포말처럼 둥둥 떠 있는 저것들은 해녀들의 ‘태왁’이다. 시커먼 현무암 바위 틈바구니에 붙게 타는 조짚불, 물에 오른 해녀들이 불을 켜는 저곳을 ‘불턱’이라고 했지, 나는 잊어먹고 있던 낱말들이 심층의식 깊은 데서 하나하나 튀어나올 때마다 남모르는 쾌재를 불렀다. 이렇게 추억의 심부(深部)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머리 속은 풍물과 사투리로 그들먹해지는 것이었다.⁷⁾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와 그가 만나게 되는 것은 아름다운 추억만이 아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이 의식적으로 망각하고자 했던 제주의 역사와 만나게 된다. 그 계기가 되는 것은 순이삼촌의 갑작스런 죽음인데, 여기서 한 가지 특기할 사항은 그녀의 돌연한 자살의 원인을 밝히는 과정 속에서, 또 하나의 상징체계로서의 서북방언이 등장하게 된다는 점에 있다. 서울에서의 언어행위의 대립이 서울방언과 제주방언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고향에서의 언어행위의 대립은 제주방언과 서북방언 사이에서 진행된다. 서울에서의 언어행위의 대립이 다분히 심리적인 차원에서의 그것이었다면, 고향에서의 언어행위의 대립은 비극적인 역사의 진행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자행되었던 역사적 행위로부터 파생된 것이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순이삼촌」속에서 그것은 토벌대에 의한 민중학살로 드러나는 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인물은 ‘고모부’다.

7) 위의 책, p.36.

고모부는 4·3 당시 서북청년단으로 입도하여, 토착민과 결혼 후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인물로 제시되어 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소설 속에 묘사된 고모부의 일상적 언어생활의 면모일 터이다. 제주인들과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는 고모부는 일상적인 언어생활 속에서는 '서북방언'이 아닌 '제주방언'을 자연스럽게 구사하고 있다. "고모부는 이 지방 사투리를 수월수월 잘도 말했다. 평안도 용강 사투리를 영 못 버리던 저 분이 이젠 여축없이 제주도 사람이 되었구나. 서북청년으로 입도해서 이제 삼십 년도 넘고 있으니 충분히 그럴 만도 하리라."⁸⁾ 4·3 이후 3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시점에서 고모부는 표면적으로는 제주의 토착민들과 완전하게 동화되어 평온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고모부가 보여주는 이러한 표면적인 평온은 4·3에 대한 기억이 복원되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동요하는 양상을 보여주게 된다. 이 동요의 양상은 순이삼촌의 죽음을 계기로 하여 이루어진 4·3에 대한 가족들간의 대화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바, 특히 4·3의 진상을 복원해야 한다는 '길수형'의 주장에 대한 고모부의 히스테릭한 반응이 서북방언으로 나오는 장면에서, 이 표면적인 평온의 이면에 잠복되어 있는 갈등의 뇌관은 생생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길수형은 자기 주장을 꺾지 않았다.

"아니우다. 이대로 그냥 놔두면 이 사건은 영영 매장되고 말 거우다. 앞으로 일십 년만 더 있어 봅서 그때 심판받을 당사자도 죽고 없고, 아버님이나 당숙님 같이 증언할 분도 돌아가시고 나면 다 허사가 아니우까? 마을 전설로는 남을지 몰라도."

길수형의 말에 갑자기 짜증이 났던지 고모부의 입에서 느닷없이 평안도 사투리가 튀어나왔다.

"기세, 조개, 지나간 걸 개지구 자꾸 들춰내선 말하간? 전쟁이란 다 기런 거이 아니가서?"

8) 위의 책, p.37.

순간 오십 줄 나이의 고모부 얼굴에서 삼십 년 전의 새파란 서북청년의 모습을 힐끔 엿본 느낌이 들었다. 야릇한 반발감이 뾰족하게 일어났다.

(중략)

고모부는 다른 사람들 귀에 거슬리는 줄도 모르고 다시 이북 사투리로 말을 꺼냈다.

“도민들이 아직도 서청을 안 좋게 생각하구 있디만, 조캐네들 생각해보라. 서청이 와 부모형제를 니북에 나두고 월남해왔갔서? 하도 빨갱이 등쌀에 못 니겨서 삼팔선을 넘은 거이야. 우린 빨갱이라문 무조건 이를 갈았다. 서청의 존재 이유는 옛새 반공이 아니잖어. 우리레 무테기로 엘에스티(LST)타구 입도한 건 남로당 천지인 이 섬에 반공전선을 구축하제는 목적이었다. 우리네 현지에서 입대해설라무니 순경두 되구 군인두 되었다. 기린디 말이야, 우리가 입대해보니까니 경찰이나 군대나 영 엉망이드랬어. 군기도 문란하구 남로당 빨갱이들이 득실거리구 말이야.(중략).”

이때 큰아버지가 끄 앓는 소릴 내며 고개를 돌려 외면해버렸다. 눈썹이 발에 밟힌 송충이처럼 꿈틀거리는 것으로 보아 몹시 심사가 뒤틀린 모양이었다. 고모부는 그제서야 이북사투리를 쓰고 있는 자신을 깨달았던지 흠칫 놀라며 말을 멈췄다. 큰당숙, 작은 당숙, 어른도 못마땅한 표정으로 담배만 툼썩툼썩 빨아댔다. 잠시 거북살스러운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언제나 반죽 좋은 고모부는 곧 섬사투리로 돌아와 다시 말을 꺼냈다.

“성님, 서청이 잘했다는 말이 절대 아니우다. 서청도 참말 육먹을 건먹어야 협쥬. 그런데 이 섬 사람을 나쁘게 본 건 서청만이 아니랴었다. 육지 사람 치고 그 당시 그런 생각 안 가진 사람이 없어서마썸. 그렇지 않아도 육지 사람들이 이 섬 사람이랜 허민 얄이 보는 편견이 있는디다가 이런 오해가 생겨부러시니……내에, 참.”⁹⁾

고모부의 발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른바 ‘레드 콤플렉스’로 규정될 수 있을 일련의 정신적 태도이다. 레드 콤플렉스란 무

9) 위의 책, pp.67-8.

엇인가.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한 과장되고 왜곡된 공포심과 그 공포심을 근거로 하여 무자비한 인권탄압을 정당화하거나 용인하는 사회적 심리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¹⁰⁾ 4·3의 와중에 자행된 토벌대의 민중학살을 정당화하기 위한 고모부의 발언은 서북방언이라는 형식을 통해 개진되고 있는 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발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의 형식까지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제주방언과 서북방언이 적대적 대립의 양상을 띠고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앞에서 우리는 서울방언을 ‘타자의 상징체계’로, 제주방언을 ‘근원적 상징체계’로 규정한 바 있는데, 이러한 인식을 확대시키면 『순이삼촌』에서 서북방언은 ‘적대적 타자의 상징체계’로 명명될 수 있을 것이다. 고모부의 서북방언을 접한 화자가 “오십 줄 나이의 고모부 얼굴에서 삼십 년 전의 서북청년의 모습을 힐끗 본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은, 고모부가 주장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으로서의 서북방언 모두가 ‘나’에게 상당한 위협감을 느끼게 하는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단순화시켜 말하자면, 『순이삼촌』에서 제시되는 4·3 당시 토벌대라든가 서북청년단의 잔혹한 민중학살의 악몽은 서북방언에 의해 상상적으로 재현된다. 그러니까 『순이삼촌』에서 고모부의 서북방언은 레드 콤플렉스를 포함한 반공 규율 이데올로기를 중계하는 소설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서북방언이 ‘가해자의 언어’라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을 넘어, 서북 방언 속에 축적되어 있는 냉전적 이데올로기의 내용물들을 강력하게 환기시키는 소설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때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작품 속에서 표출되는 제주방언의 ‘해방적’ 기능일 것이다. 4·3 당시 학살당한 일반 민중들을 ‘공비’로 볼 것인가 아니면 ‘피난민’으로 볼 것인가 하는 사안에 대한 고모부와 화자의 대화에서 이러한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10) 강준만 외, 『레드 콤플렉스』, 삼인, p.7.

“고모부님, 고모분 당시 삼십만 도민 중에 진짜 빨갱이 얼마 된다고 생각했수파?”

“그것사 만명쯤 되는 비무장 공비 빼부리면 얼마 되어? 무장공비 한 3백 명쯤 되까?”

이 말에 나도 모르게 발끈 성미가 났다.

“도대체 비무장 공비란 것이 뭐우파? 무장도 안한 사람을 공비라고 할 수 이서마썸? 그 사람들은 중산간 부락 소각으로 갈 곳 잃어 한라산 밑 어기저기 동굴에 숨어살던 피난민이우다.”

나의 반박하는 말에 고모부는 의외라는 듯이 흠칫 나를 바라보았다.

“그건 서울 조개 말이 맞아. 나도 직접 내 눈으로 봤쥬. 목장지대서 작전 중인데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길래 덤불속을 헤쳐 수색해보난 동굴이 나왔는디 그 속에 비무장 공비 스무 남은 명이 들어 있지 않애여.”

“비무장 공비가 아니라 피난민이라마썸.”

나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고모부의 말을 수정했다.

“맞아, 내가 말을 자꾸 실수해. 그땐 산에 올라간 사람은 무조건 폭도로 봤으니까.(……).” 11)

위의 인용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제주방언이 은폐되었던 4·3의 진실을 복원하는 상징체계이자 고백의 상징체계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일 터이다. 고모부가 이 부분에서 그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던 가해자의 언어인 서북방언이 아닌 제주방언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모부가 서북방언 대신 제주방언을 구사하는 행위는 서북방언에 침전되어 있는 냉전적 이데올로기의 세계에서 벗어나 제주방언에 깃들여 있는 해방적 세계로 이행하는 정체성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때 제주방언은 은폐되어 있던 역사의 비극을 발굴해내는 진실의 언어이자 해방의 언어로 소설 속에서 기능하게 된다.

11) 위의 책, pp.70-71.

2-3.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순이삼촌」에서 서울방언, 제주방언, 서북방언으로 편의상 구분한 언어적 코드들이 매우 효과적인 서사적 장치로 작동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확인하게 된 각각의 방언들의 소설 속에서의 상징적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1) 「순이삼촌」 속에서 서울방언의 지배적인 특성을 체현하고 있는 인물은 아내이다. 이때 아내의 서울방언은 제주의 4·3이라는 민족사적 비극을 포함한 역사성이 탈각된 가치중립적 성격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서울방언이라는 상징체계 속에서 '나'와 순이삼촌이 느끼는 피해의식과 소외의식은, 그들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 4·3의 역사적 기억이라는 것이 완전히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된다는 사실에서 오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자면 '나'와 '순이삼촌'에게 서울방언은 '타자의 상징체계'로서 기능하고 있다.

(2) '나'가 서울을 떠나 제주로 향하는 것은 언어적 코드에서 보면, 서울 방언의 상징체계를 벗어나 제주방언의 상징체계로 귀환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바꿔 말해 '나'의 제주방언을 통한 언어행위는 '타자의 상징체계'를 버리고 '근원적 상징체계'속으로 귀환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셈이다. 그러나 근원적 상징체계로서의 제주방언에는 4·3을 포함한 흑독했던 제주의 역사적 기억들이 침전되어 있다. '나'는 제주방언을 통해 이러한 역사적 기억들과 맞대면하게 되며, 자신이 의식적으로 망각하고자 했던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을 복원시킨다. '나'가 제주방언을 통해 언어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망각된 기억을 복원시키는 작업이면서, 동시에 파행적인 역사의 진행과정 속에서 은폐되고 왜곡되었던 진실을 드러내는 작업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자면 「순이삼촌」에 나타난 제주방언은 해방의 언어로서 기능한다.

(3) 그러나 제주로 돌아온 '나'는 서북방언이라는 적대적 상징체계와도 조우하게 된다. 이 적대적 상징체계의 체현자로 등장하는 인물은 이모부다. 서북방언을 기반으로 하는 고모부의 언어행위는 작품 속에서

레드 콤플렉스를 포함한 반공 규율 이데올로기를 중계하는 서사적 장치로 기능한다. 고모부의 서북방언 속에는 냉전적 이데올로기 의 내용물들이 침전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순이삼촌」에서 작동되는 이러한 세 층위의 방언체계에 대한 의미를 정립했다고 해서, 이 작품의 전모가 드러났다고는 볼 수 없다. 이 작품의 전모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 순이삼촌의 죽음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까닭이다. 그렇다면 순이삼촌은 왜 자살을 감행했어야만 했을까. '나'는 다음과 같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그 움팡발에 붙박힌 인고(忍苦)의 삼십 년, 삼십년이라면 그럭저럭 잊고 지낼 만한 세월이건만 순이삼촌은 그렇지 못했다. 흰 뼈와 총알이 출토되는 그 움팡발에 발이 묶여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었다. 당신이 딸네 모르게 서울 우리 집에 올라온 것도 당신을 붙잡고 놓지 않는 그 움팡발을 뽕개쳐보려는 마지막 안간힘이 아니었을까?¹²⁾

순이삼촌은 4·3 당시 토벌대의 소개작전이 진행되는 와중에 얻은 정신적 충격으로 이후 삼십여 년간을 피해의식과 강박증에 시달렸고, 그 결과 비극적인 자살을 감행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나'의 분석은 소설의 전반적인 흐름을 염두에 둘 때 매우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것을 언어적 코드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는 순이삼촌의 삼십년 간의 행적을 유추해 보건대, 그가 서북방언으로 상징되는 언어체계가 전면화되었던 30여 년 전 4·3 당시의 현실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순이삼촌은 현실 속에서 제주방언을 통한 언어행위를 수행했지만, 이때의 제주방언은 은폐된 진실을 복원해내는 해방의 언어가 아니라, 적대적 타자의 상징체계인 서북방언과의 관계 속에서 침묵해야 했던 금기의 언어였다. 그가 제주를 떠나 서울로 올라온 것은 자신의 무의식을

12) 위의 책, p.79.

강박적으로 억압했던 서북방언의 억압적 상징체계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울에서 그녀가 대면했던 서울방언 역시 그의 내면적 피해의식과 억압을 해방시키기보다는 그것을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하는 타자의 언어였다.

언어행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순이삼촌은 내면의 상처와 억압을 고백할 '언어공동체'에서 이탈된 존재라고 볼 수 있다. 만일 그녀가 고향 마을의 제삿집에 모였던 다른 제주 사람들처럼, 그의 내면 속의 상처를 고백하고 그것을 치유하면서 자신의 제주방언을 해방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면 자살이라는 극단의 선택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3.

지금까지 우리는 「순이삼촌」에서 각기 다른 방언들이 어떻게 4·3에 대한 효과적인 의미생산의 매개로서 기능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작가 현기영이 「순이삼촌」속에서 궁극적으로 강조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시켜 보자.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순이삼촌」은 4·3이라는 역사적 비극을 그 체험당사자인 제주인의 시각에서 고백하고 이것의 의미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표출해낸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이때 제주방언으로 상징되는 '근원적인 언어체계'는 민중학살을 포함한 비극적인 제주 역사를 내포하고 있는 '피해자의 언어'이면서도, 동시에 이에 대한 진상의 해명을 통해 보다 넓은 지평에서의 인간해방을 기획하는 '해방의 언어'로서 기능하고 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4·3의 진상에 대한 「순이삼촌」에서의 고백이 서북방언도 서울방언도 아닌 오직 제주방언을 통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4·3으로 상징되는 비극적 역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것에 대한 의미부여의 일차적인 주체가 제주인 자신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환기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강조되는 담화의 양식이 이른바 '고백'이라는 형식일 터인데, 문제는 지나간 역사에 대한 고백이 오직

피해당사자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물론 그간 금기시되어 왔던 4·3에 대한 피해 당사자들의 고백은 4·3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십분 강조될 필요가 있는 사항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4·3과 관련한 일련의 역사적 상처들이 온전하게 치유되기 위해서는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의 고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 또한 분명하다.

그런데 이 소설이 발표되었던 1978년에서 20여 년 이상 경과한 오늘날의 시점에서 볼 때도, 4·3의 가해자들에 의한 참화와 고백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고모부가 제주방언을 통해, 4·3 당시 자신을 포함한 토벌대 일반의 잔혹한 민중학살에 대해 일부 반성하고 있는 것은, 소설 속의 현실이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구체적 현실에 비해 월등 앞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고모부의 고백 역시도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자면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 단적인 예가 당시의 제주민을 ‘폭도’와 ‘양민’이라는 극단적인 이분법 속에서 파악하는 시각일 터인데, 이것은 이 소설이 발표되던 유신 말기의 냉전적 사회 분위기가 작품 외적인 제한요소로 작용한 데서 나온 현상일 것이다.

이처럼 「순이삼촌」에서의 제주방언은 4·3의 진실에 근접해가려는 현기영의 역사적 시각을 중계하는 언어적 매개로서 작동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순이삼촌」의 주제의식을 간접적으로 부각시키는 매우 중요한 상징체계로 작동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주방언에 대한 강조가, 역으로 육지에 대한 배타의식으로 전환될 가능성 또한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이다. 제주와 육지를 상호 대립적인 차원에서 사유하는 태도는, 가령 작중 화자가 서울에서의 삶을 비본질적이고 무의미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나, 고모부가 서북청년단의 제주인들에 대한 증오를 육지 사람 일반의 선입관으로 치환시키는 부분에서 강렬하게 드러나는데, 이러한 작가의 관점은 4·3이라고 하는 해방 직후의 비극적 사건을 제주라고 하는 특정 지역의 비극으로만 축소시킴으로써, 오히려 4·3에 대

한 보다 넓은 지평에서의 의미탐구 노력을 제한하게 하는 예상외의 결과
를 파생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1978년 당시 작가 현기
영의 의식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실제로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 역시 이러한 관점을 상당 부분 견지하고 있을 수도 있다
는 점에서 환기가 필요한 사항일 것 같다.